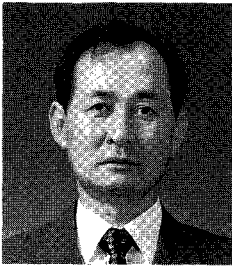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양계인들 모두 힘을 합하여 양계 협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충분한 예산없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월간양계를

기대할 수 없고 더구나 앞으로의 정부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한 번 월간양계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바이다. **양계**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



이 광 식
평택양계조합 대표

어려운 환경속에서 반세기에 가깝도록 양계 발전에 초석이 되어온 월간 양계가 창간 30주년을 맞은 것에 대하여 양계인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그동안 국내양계산업의 경쟁력 배양 및 양계농가의 대변인으로 노력해오신 월간양계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자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계업계가 처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 양계업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우리 양계업계는 잉여산물로 인해 사료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

난가, 각종질병, 일부 상인들의 계란수입 등의 요인으로 IMF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양계농가들이 실의에 빠지고 도산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1990년도에는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경쟁력제고사업은 많은 양계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소비가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 시설과잉은 잉여생산의 원인이 되어 난가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어려운 양계농가의 살림을 생각할 때 충격적이어서 슬기롭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양계농가들이 들었던 막대한 자금이나 정성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양계업계는 붕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증가율이 생산량에 도달하는 시점이된 몇 년간은 대처방안 마련에 고심하여야 하고, 적정난가를 위해서는 잉여산물의 과감한 처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수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자를 보더라도 잉여산물에 대하여 수출이 가능하다면, 많은 양계인들이 바라는 적정난가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첫째는, 자조금에 의한 수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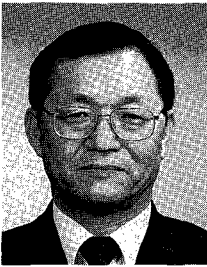
자조금의 절반은 정부지원이 가능하므로 과감하게 적자수출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산물의 가격을 보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는 10만수 이상의 대군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들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잉여산물의 취합 및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축협 등의 대규모 집하장들에 의한 잉여산물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잉여산물의 수출문제는 꼭 이루어야 될

과제이며, 적정산물에 대한 유일한 가격보호책일 것이다.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잉여산물의 적자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양계업계도 지금까지의 저난가로 인한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양계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양계**

기술적 정보기능 강화에 주력..



강 문 달
충북양계축협 조합장

월간양계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 불과 2개월 남짓이면 새로운 2000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온다. 그러나 양계업

의 미래는 어떤 뚜렷한 대안도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소비부진으로 인한 저가의 시세 형성으로 저장품물량은 창고에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고, 수입닭고기는 이에 비웃음치듯 물밀 듯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의 현 양계업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30년동안 양계업이 걸어온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늘 그 곁에는 월간양계가 지켜보며 애환을 같이 해왔다.

월간양계를 통해 전달된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양계업이 성장하였고 소규모 가족 경영 수준에서 기업형태 수준으로 발전되어 전문적인 경영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도